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2022년 650억 달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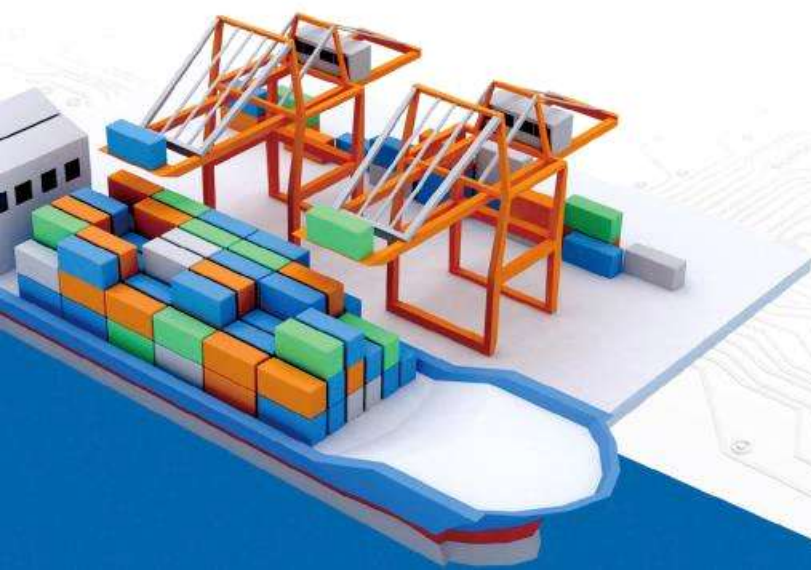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DP World, 유럽 Unifeeder社 지분 100% 인수
2. 북극 LNG 운송 사상 첫 STS 환적 성공
3. 함부르크항 HHLA, 하이퍼루프 기술 도입계획 발표
4. 인도 JNPT항, 물류경쟁력 제고 위해 터미널생산성 향상 노력 지속

명사 스피치

“정부에서는 해운조선, 선화주, 대·중소 물류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북방물류시장의 발판 마련, 인도-아세안 등 신남방지역 공동 진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장은 해외 진출 우리 화주의 SCM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기술보다는 공급사슬(Supply Chain), 즉 국제물류의 경쟁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2018. 12. 12. / 2018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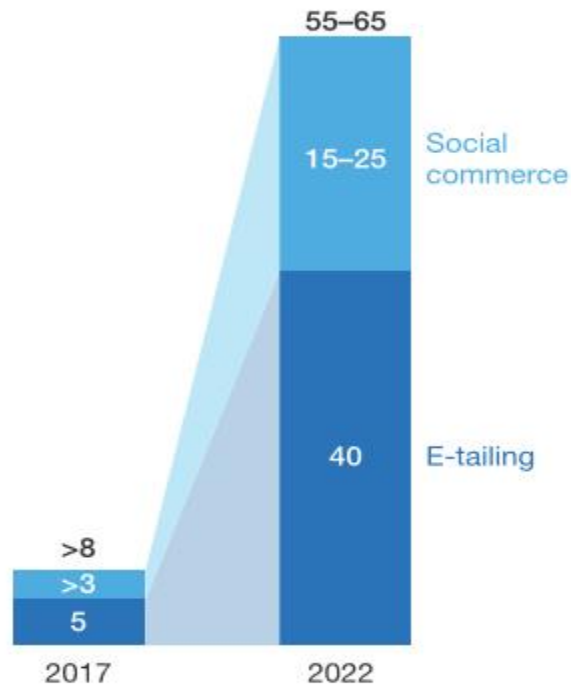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2022년 650억 달러로 성장

2017~2022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 <https://www.mckinsey.com>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7년 기준 8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6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25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은 전자상거래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던 매출액임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중 온라인 행사인 싱글데이(Single's day) 등을 통해 그 잠재력을 이미 과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대 26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보석 수출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인도네시아 제품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http://www.thejakartapost.com>, 2018.12.10.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DP World, 유럽 Unifeeder社 지분 100% 인수

- 두바이의 글로벌 터미널운영사인 DP World는 유럽의 Unifeeder社의 지분 100%를 6억 6천만 유로(748백만 달러)에 인수함
 - 이와 같은 인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DP World의 입지를 강화하고, 특히 소형선박에 의한 피더서비스(Feeder Service) 및 근해운송(Short-Sea Shipping) 부문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DP World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업이나 Unifeeder 인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할 뿐만 아니라 핵심비즈니스 영역을 보다 확장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Unifeeder社는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피더 서비스, 도로 및 철도와 연결되는 복합운송을 제공하는 종합물류 기업임
 - 1997년에 설립되어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북유럽 지역 약 100여개 항만과 연결되는 해상운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사업 영역은 피더서비스(Feeder Service) 및 근해운송(Short-Sea Shipping) 서비스 제공임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DP World의 Unifeeder 인수가 유럽 경쟁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함
 - EU의 성명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및 근해운송서비스가 시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림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및 Hellenic Shipping News 참조, 2018.12.11. 검색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북극 LNG 운송 사상 첫 STS 환적 성공

- 2018년 11월 24일 LNG 운반 쇄빙선 블라디미르 루사노프(Vladimir Rusanov)호가 노르웨이 호닝스버그(Honningsvåg)에서 LNG 북극운송 사상 첫 선박 대 선박(Ship-to-Ship, STS) 환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올해 3월 26일 인도된 블라디미르 루사노프호는 MOL과 COSCO SHIPPING Energy사 산하의 Shanghai LNG사가 합자로 건조했으며, 최근까지 약 12차례 야말 LNG를 수송함
 - 이번에 블라디미르 루사노프호(ARC7)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스 클래스(Ice Class) 등급의 프스코프(Pskov)호는 호닝스버그의 잔잔한 공개 수역에서 나란히 계류한 채로 STS 환적작업을 수행함



주: 左 블라디미르 루사노프호, 右 프스코프

자료: <https://www.mol.co.j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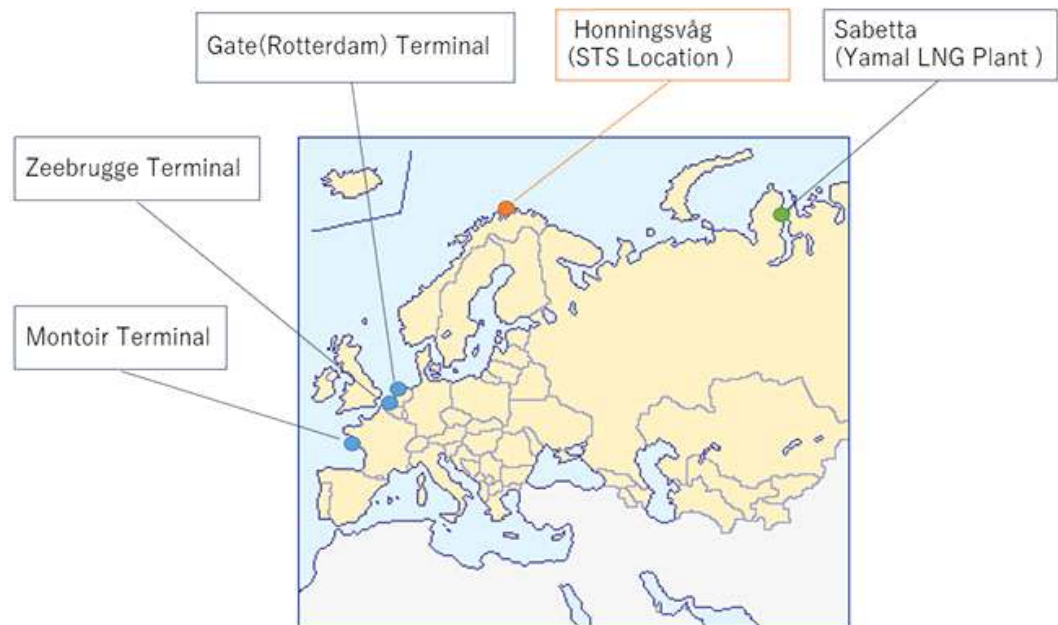
주: 左 프스코프호, 右 블라디미르 루사노프호

자료: <https://www.mol.co.jp/en/>





- 이번 STS 환적작업의 성공으로 기존 대비 1주일 정도 운송시간 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절기에 비 채빙선의 접근이 제한된 사베타(Sabetta)항의 LNG 수송 빈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동절기에 LNG를 선적한 채빙 운반선이 프랑스 몽투와(Montoir), 벨기에 지브뤼헤(Zeebrugge),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등 서유럽 LNG 터미널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베타항을 왕복 운항하는데 2주 이상 소요됨
 - 이번에 호닝스버그에서 환적작업을 마친 블라디미르 루사노프호는 곧바로 다시 사베타항으로 북항함에 따라 야말 LNG 프로젝트의 LNG 수송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s://www.mol.co.jp/en/>

- 마찬가지로 MOL과 Shanghai LNG가 합자로 건조하고 2018년 10월 19일에 인도된 블라디미르 바이즈(VLADIMIR VIZE)호가 추후 야말 LNG 운송 및 STS 환적작업에 투입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www.mol.co.jp/en/> 2018.11.27.

<http://www.eworldship.com/> 2018.12.07.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함부르크항 HHLA, 하이퍼루프 기술 도입계획 발표

함부르크항 HHLA에 설치될 하이퍼루프 시설



자료 : www.transportandlogisticsme.com

- HTT(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는 함부르크항 터미널 운영사인 HHLA와 합작 회사 설립을 발표함
 - HTT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활용한 화물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함부르크항 내에서 하이퍼루프 기술을 테스트해 본 후 전 세계 항만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하이퍼루프는 2013년 엘론머스크에 의해 고안된 신기술이며, 마찰력을 줄인 진공 튜브를 이용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합작회사는 함부르크항 HHLA터미널에 하이퍼루프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임
 - 시범사업을 통해 100m 이상의 화물수송 하이퍼루프, 특수 화물캡슐, 하역시설, 환승스테이션 등을 설치할 계획임
 - HHLA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개발하고 항만의 각종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음
- 하이퍼루프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항만은 한정된 용량을 확장하고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이퍼루프의 도입으로 항만과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연결되면 항만의 영역이 확장되어 야적공간이 확보되며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항만 인근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www.transportandlogisticsme.com, 2018.12.11., www.supplychaindive.com, 2018.12.11.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

인도 JNPT항, 물류경쟁력 제고 위해 터미널생산성 향상 노력 지속

- 최근 인도 주변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JNPT항은 화주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터미널 생산성 향상 및 항만배후지역 화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JNPT(Jawaharlal Nehru Port Trust)항은 세계 30위권의 항만으로 연간 400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인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임
 - JNPT항만 내 BMCT(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s)를 운영하는 PSA는 최근 “EPIC2/India Ocean(인도-중동-북유럽-지중해)항로 서비스에 배치된 9,954TEU급 선박이 뛰어난 생산성 지표를 보여 화주의 물류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힘
 - ‘EPIC2/India Ocean’ 서비스는 Hapag-Lloyd, CMA-CGM 및 Cosco Container Lines가 공동 운항하는 서비스로 약 56일 동안 함부르크항, 앤티워프항, 런던 게이트웨이,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의 Jebel Ali, 인도 JNPT항의 Nhava Sheva를 거쳐 다시 함부르크항으로 돌아오는 정기선 서비스 항로임
 - 20시간 운영되는 BMCT 부두에서 선석 생산성은 시간당 약 175move를 기록했으며 약 3,352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해 지난달(11월) DP World의 Nhava Sheva 게이트웨이터미널의 생산성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음
 - 특히 금번에 기록한 시간당 175move의 생산성은 기존 PSA가 인도 첸나이 터미널에서 기록한 시간당 169move 및 홍콩항에서 기록한 시간당 155move의 터미널 생산성보다 높음
- JNPT항은 향후 항만장비 확충, 터미널 시설개선, 항만과 배후지역 간 철도 연계성 강화 등 화주의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JNPT항은 향후 배후 핵심지역인 Uttar Pradesh주와 매달 40회의 운항이 가능한 항만인입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며 PSA가 운영하는 BMCT에 2019년 2분기까지 3대의 갠트리크레인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장래 약 480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처리능력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인도 JNPT항 BMCT(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의 화물처리 전경



출처: https://www.joc.com/port-news/terminal-operators/psa-international/jnpt-psa-terminal_20181205.html

■ 참고자료 : www.joc.com, 2018.12.06.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